

2015年 5月 12日. 화요일. 日記

page 1

(글쓴이: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24-1 (송림동) 김재천)

오늘 일어난 일 중에는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조선일보)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살한 성완중 (경남기업회장) 씨로부터;
: 2011年 6月 한나라당에 낸 경선 기탁금 1억 2000만 원에
성 전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중:

사건 내용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6월 한나라당 경선 때
경선 기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냈는데, 그 중 1억 원은
고(故) 성완중 씨가, 윤승모 (52세) 前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쇼핑백에 1억 원을 담아 홍지사에게 전달했다
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홍지사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2015년 5월 12일 신문에 나와있지만,
Human & Memory Archives

전후 정황과 보도내용으로 볼 때는,
홍준표 씨가 고(故) 성완중 씨가 보낸 돈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오늘 (2015년 5월 12일) 저녁, TV 방송 채널 17 'JTBC 뉴스룸'
에서도 방송되었는데, 1억 원을 전달한 윤승모 씨가 2011년 당시
의원 회관의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 방 번호와 내부구조까지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홍준표 씨는 계속 부인하고 있고,
결국 5월 11일 (월요일), 홍준표 씨가, "경선 기탁금 1억 2000만 원은
자기 아내가 마련해 줬다"는 '의외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래시계) 검사 출신 홍준표 씨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있다

과거 검사시절 홍준표씨는, 당시 공화국 황태자라고 불리던 박철언 前 장관을 수사하여 구속시키고, 이전개표 등 거물급 인물을 검거하여 명성을 날린(?) 분이다.

그 후 홍준표씨는 정계에 진출하여 국회의원, 원내대표, 당대표 등 화려한 경력을 쌓고, 2015년 현재에는 경상남도 지사로 선출되어 차기 대선추보중 한 명으로까지 부상(浮上)하였다. 또 자기말로 '자기는 돈과 여자로부터 자유롭다'라고 까지 말한 사람이다. 그러나, 경남지사시절, '학생 무상급식 거부'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에는,

이명박 前 대통령 시절 사건중 하나인 방위산업비리수사중, 고(故) 성완중 前 경남기업회장이, 자기 회사가 망하게 되자, 그동안 성회장이 정치계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게 되었는데, 그 유서중에, 여러 명의 정치인들의 이름과 준돈의 액수를 적은 메모지(유서)가 친필로 확인된 것이다.

그 결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결국 자진사퇴하게 되었고,

나머지 친박(現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계 정치인들은 돈을 받고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박(非朴)(現 박근혜 대통령과 별로 친분이 없는 사람들)계 정치인인 바로, 홍준표씨만, 성완중씨의 돈 1억원을 받은 것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죽은 자(者)는 말이 없다'라고 하듯이 고(故) 성완중 前 회장은 죽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홍준표씨가 1억원을 받은 것이 거의 확실한데도 당사자는 부인(사실을 인정하지 않음)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민(國民)들도, 사실이 대한 인식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형편에 있다. 그리고, 신문·방송도

現(現) 정부측에서는 사실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에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선거자금까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결코려를(?) 문제인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흥준포씨는 왜 1억원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부인이 1억2000만원을 마련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성원종 前 경남기업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죽은 마당에, 사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일명(-음) '오리발작전'을 하고 있고,

또,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1억2000만원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잘못은 지금으로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공소시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과연, 과거 검사로서 명성을 날렸던 흥준포씨 님은 '머리 굴리기' 아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신문·방송에 보도되는
오늘 (2015년 5월 12일, 화요일)이었다.

나 개인적으로는 오늘, 흐리고 바람부는 날씨에
집에 있으면서, 연로하신 父母님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끝까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보았다.

개인적으로 나는 기독교인 (장로교인)이고, 부모님도
기독교인 이시기 때문에, 기독교 (예수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천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내 신앙(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기도드리며 마음으로 보낸 하루였다. (2015년 5월 12일 김재천 金載千 翁.)